

#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8, 영원한 왕국

© 2024 Gus Konkel 및 Ted Hildebrandt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8회차, 영원한 왕국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의 확언과 함께 역대기 기자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지파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역사가 추악하게 진행되는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역사의 세세한 부분과 그 추악함, 전쟁, 기타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제 이곳이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임을 절대적이고 분명하게 입증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에 따르면 이 사실은 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통치 기간에 즉시 설명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리앗 -여아림에 버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앞에 두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유다 지파의 서쪽 끝 지역 곧 당시 유다의 영토 곧 예루살렘 서쪽 그 랏여아림 까지 얻었고 거기 그대로 남았더라. 그런데 이것은 법궤가 표현해야 할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과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언약의 돌판을 두는 곳으로서의 궤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의 당면 임무는 이 궤를 위한 장소를 예루살렘에 마련하고 그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와

이야기에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지시에서 알았어야 할 의례에 전혀 따르지 않은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궤는 항상 이 상자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네 개의 막대로 운반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이 궤를 수레, 즉 일종의 소 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역대기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적어보겠습니다.

parash 라는 단어는 break out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break out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숫자, 힘, 충성심 측면에서 폭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된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기 위해 폭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법궤를 부적절하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레가 불안정해지고 법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제사장 이 손을 뻗어 궤를 붙잡으려고 하자 하나님, 파라쉬가 터져 나옵니다.

몇 달 전, 저는 McMaster University에서 실제로 무슬림이 후원하는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에서 그들은 토론토에서 가져온 Ahmadiyya 신앙과 이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을 대변하는 기독교인을 원했고, 인본주의적 관점을 대변하는 무신론자나 인문주의자를 원했고, 무슬림적 표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에는 우리 4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엄청난 참여율이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McMaster University에서 가장 큰 강의실과 강당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적어도 200명쯤은 있었을 텐데, 모두 통로에 앉아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통로에 앉아서 서로 가까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넓은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토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슬람교도들이 토라 모임을 놓고 이슬람교도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뜨거워져서 중재자는 이를 종료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또 다른 부분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내 왼편에 온 무리 전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비웃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 것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변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읽혀진 구절 중 하나는 웃사가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요점은 '누가 왜 그런 신을 섬기고 싶어하겠는가?'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히브리어의 거룩함 개념에 대한 완전한 무지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무지입니다. 내 요점은 당신이 신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 즉 그분이 창조된 우주 밖에 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표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된 우주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규칙에 따라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 공통 세계 내의 또 다른 상자 이상의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조롱하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절이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항상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웃고 싶어하는 사람들 등 매우 엇갈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아, 신에 대해 말할 때 단지 추상적인 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을 거룩하다고 밝힌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썄, 그게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것은 평범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들이 결코 함부로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항상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목적을 위해 방주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주를 존중해야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법궤의 전체 행렬과 절차를 방해하며, 그 지점에서 연대기 기자는 예루살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그곳으로 옮길 준비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어떻게 확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대기 기자는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왕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전 건축과 관련해 다윗이 가졌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로 왕 히람의 지원을 여기에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가족과 그곳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앞서 언급한 사건, 즉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습격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윗이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의논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여쭙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공격하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결과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다음 역대기 기자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David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다윗이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성전 직원을 조직하여 권한을 받은 올바른 사람들이 규정된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팔라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상징이 그 표현에 힘을 얻도록 허용하여 이것들이 단지 다른 항목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거룩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설치하기 위해 가져오는 전체 축제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점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마련한 천막 안에 법궤만 설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성막 자체가 아직도 기브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는 기브온 성막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장막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법궤를 둘 곳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의 예배 장소가 있고 보안 요원과 레위인의 이중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 주위의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기브온 뒤에 있습니다.

이제 연대기 편찬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 즉 음악과 찬송가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대기 기자가 다윗이 방주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 노래들과 찬송가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대기가 하고 있던 일은 시편에서 찬송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주위에서 부르던 찬송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

다시 읽고 싶은 시편입니다. 나는 시편 105-106편을 가르치곤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시편들이 평행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한 모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 그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서 우리는 그가 실제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유일한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레모를 쓰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편에서 연대기 기자는 시편의 모든 구절을 인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시편의 일부인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부분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주 왕국이므로 우리는 시편 96편과 98편을 우리가 때때로 즉위 노래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게 하소서, 아니면 주님이 통치하시게 하고 이 노래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에 임재하시는 방식과 온 땅에 대해 그분의 정의와 통치를 행사하시는 방식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연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요, 모든 나라들이 와서 절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시편 106편으로 돌아와 이 고백 시편의 마지막 구절만을 사용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고 싶었던 요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다윗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축복하실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오는 매우 유명한 구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이제 왕좌에 앉아 “내게는 평안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나는 사방에 있는 적들로부터 안식을 얻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가져오셨고 이제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여기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에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거꾸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이비드는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집이라는 단어에 대한 약간의 유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27, 1, 2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은 주님 외에는 집을 지키시는 순례자의 노래의 일부입니다. , 파수꾼의 감시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백성과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보호자의 감시가 헛되도다. 이제 집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극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도시라는 단어의 유희는 물리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집안에 화살통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즉, 집은 사람이다.

성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시는 집은 백성입니다. 이 약속의 일부가 될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을 대표하며, 그들은 영원히 있을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David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겸손의 반응입니다. 주님, 다윗은 내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실 만큼 가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가치가 가장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비드는 연대기 기자가 우리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확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에 법궤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왕국이 되기 위해 모일 곳입니다.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세션 8, 영원한 왕국입니다.